

호남대 외식조리학과, 건강음식 200인분 기부

24가지 메뉴 어룡동 지역 어려운 이웃에 전달

호남대학교 외식조리학과 학생들과 교수진이 200인분의 건강음식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지난달 29일 호남대에 따르면 외식조리학과는 최근 4학년부터 1학년 신입생까지 모두 12개 팀을 구성, 팀별로 겹치지 않게 메뉴를 정해 각각 10인 분씩의 두 가지 음식을 만들었다.

지역의 신선 식재료를 이용, 건강과 영양을 함께 고려해 만든 영양

콩나물밥·달래 순두부 김밥이·봄나물 오징어 초무침·미나리 오리 무쌈·새송이 떡갈비·한방 단호박 불고기 등 24가지 메뉴는 학생들의 정성과 함께光山구 어룡동 지역 홀몸 어르신 등에게 전달됐다. 박원철 어룡동 주민자치회장은 "식재료가 비싸지면서 한끼 식사비용도 부담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을 기부해줘 고맙다.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전해준 온정만큼이나 따뜻한 사랑의 손



호남대 외식조리학과 학생들이 건강음식을 조리하고 있다.

길이 전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기 기자

포토뉴스



강기정 시장, 광주교대 개교 10주년 기념식 참석

강기정 광주 시장이 지난

달 29일 오전 북구 광주교대 제1운동장에서 열린 '광주교대 개교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허승준 총장과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도기 기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1000만원 기탁

이사장 강기정 시장 "지역인재 꿈 키우기 응원 부탁"



(재)빛고을장학재단 이사장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29일 시청 비즈나스룸에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가 빛고을장학재단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사장인 강기정

시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시·전남도회 전상철 회장, 손동철 부회장이 참석했다.

전상철 회장은 "어려운 가운데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사회

에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재)빛고을장학재단 이사장은 "2015년부터 인재양성 장학금을 기탁해주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힘 모아주시는 만큼 인재 양성 사다리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지역인재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응원 부탁한다"고 밝혔다.

1981년 무등장학회로 시작한 (재)빛고을장학재단은 해마다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06명의 학생에게 3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도기 기자

5·18공로자회, 새 집행부 출범...윤남식 회장 선출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서구 5·18교육관에서 정기중앙총회를 열어 새 집행부를 꾸렸다.

공로자회는 정기중앙총회를 통해 윤남식 신임 회장과 이흥철 이사, 김경오·이강현 감사를 선출했다. 윤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윤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과거 공로자회 운영 과정에서 있었던 파행을 사과하고 단체 정상화를 약속했다. 시민 단체와의 관계 개선, 단체 새 사무실 마련 공약도 지적을 다짐했다.

윤 회장은 "회원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에 나서며 정관과 규정을 실정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의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공로자회 재정 건전성을 확보, 조직을 활성화해 전국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시민 단체 사이 관계를 개선, 5·18 정신을 선양하는데 힘쓸 것"이라며 "다른 5·18공법단체와 협력해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인사

광주상공회의소

◇승계2급

▲광주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

팀장 김노진

▲검정사업팀장 박시현



청암대, 70주년 RISE UP FAIR 앞두고 개교기념일 행사

청암대학교는 개교 70주

년을 맞이해 올해 9월 Rise Up Fair 행사를 앞두고 개교기념일 시상 및 포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성홍 총장직무대행은 기념사를 통해 '캐치프레이즈 최우수상 작품인 70년의 영광, 100년의 혁신을 향한 발돋움'의 문구처럼 앞으로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날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청암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광양읍, 포항 오천읍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

광양시 광양읍은

경북 포항시 오천읍사무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매결연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해 포항시 오천읍과 상호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광양·조순의 기자

광주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건전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 형성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1일 두암중학교를 시작으로 약 7개월간 관내 초·중·고·특수 1500여 학급 대상으로 '2024년 학교로 찾아가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지난달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예방 교육은 학생들의 디지털

미디어 노출 시간 증가로 발생하는 등 다양한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고 건전한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인공지능(AI)

윤리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예방교육 강사들은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디지털 윤리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1~2시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월 29일 지방공무원 어울매우터에서 진행된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강사 사전 연수'를 통해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사업 목적과 학교급별 교육 자료 활용법 공유 등으로 강사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건전한 정보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순주 기자

순천경찰, 보이스피싱 신고자 감사장 수여

피해 예방 공로 보상금 지급...1000만 원 전액 회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순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 A씨는 지난 3월 18일 고령의 노인이 젊은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금 1000만 원 전액 회수할 수 있게 피해를 막았다.

국승인 순천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은행은 유기적인 협조로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감사장 및 신고 보상금 등 지급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최근 A은행에서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인출해 수거자에게 전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속아 은행 직원 등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설명해도 믿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순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찾아 1000만 원 이상 인출 한 고객을

작은유치원네트워크 공동교육과정 협의회

순천교육청, 튼튼한 공동교육과정으로 실천해요



순천교육지원청은 작은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업무 담당교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작은유치원협력네트워크 공동교육과정 운영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은유치원협력네트워크는 1학급 병설유치원 12원이 3법력 군으로 조직해 공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유아와 교사의 배움과 성장을 나누는 상호 협력네트워크이다.

이번 협의회는 작은유치원 실태에 따른 공동교육과정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연령간 포래 놀이, 함께하는 보호자 유치원 교육 참여 연

수, 찾아오는 문화 예술 공연, 놀이 한마당 등으로 소인수, 혼합연령의 작은유치원에 실천하기 어려운 활동을 협력군과 함께 공동교육과정 만들어, 유아의 성장을 돕고, 협업문화를 조성해 가고자 마련했다.

성남초병설유치원 교사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허동균 순천교육장은 "하지만, 행복한 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조순의 기자

광양교육청, 찾아가는 광양진로페스티벌

자기주도적 삶 설계하는 진로체험교육 지원



광양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적성과 미래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직업 탐색을 위해 지난 3월 28일 광양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2024 학교로 찾아가는 광양진로페스티벌'을 운영 중이다.

광양진로페스티벌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를 고려한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1단계 맞춤형 진로특강 ▶2단계 진로·직업체험 ▶3단계 찾아가는 현장탐방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1단계 맞춤형 진로특강에서는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된 '악당은 아니지만 지구정복'의 저자인 안시내 작가를 초청해 봉사·여행·진

로탐색에 관한 생생한 강의를 통해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진로특강에 참여한 광양여중 학생은 "나만의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계준 광양교육장은 "꿈을 발견하고 미래의 나를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광양교육은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의 기자